

민주 새 원내대표에 '86그룹' 이인영



“새롭게 뒤통습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인영 의원이 손을 맞잡아주고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태년 후보, 이해찬 대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홍영표 전 원내대표, 노웅래 후보. /연합뉴스

김태년과 결선투표서 27표 앞서...지도부에 새바람 한국당 원내 복귀 막힌 정국 뚫기 최대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으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인 3선의 이인영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의원이 76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태년 의원은 49표를 얻는데 그쳤다. 결선 투표에 앞서 열린 1차 투표에서는 이인영 의원 54표, 김태년 의원 37표, 노웅래 의원 34표를 각각 득표했다. 선거전 초반만 해도 친문(친 문재인) 후보로 평가받던 김태년 의원의 우세가 점쳐졌다. 이에 맞서 이인영 후보는 민평련 등 당내 중도세력을 기반으로 지지를 넓혀 끝내 역전을 이뤄내는 저력을 보였다. 이 신

임 원내대표가 선거전 내내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 '혁신과 쇄신'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친문 세력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견제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대표 경선에 비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내 친문 진영의 분화가 뚜렷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우리는 변화에 승리할 수 있다. 제안의 낡은 관념, 아집부터 불살라 버리겠다”고 역설한데 이어 당선 소감을 통해 “민주당이 넓은 단결을 통해 강력한 통합을 이루고 그것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친문(친 문재인) 이해찬 대표와 색깔이

다른 이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민주당 지도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친문 일색’이었던 지도부의 진용이 변화하면서 다양성이 확보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도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총선 전략과 공천 등에서 이 원내대표가 ‘친문 쏠림’을 막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 반면, 비교적 단일대오를 유지해온 민주당에서 계파별 목소리가 선명하게 분출되면서 갈등과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와 소통·협력의 첫 출발은 상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주요 정책의 결정은 상임위가 해당 부처를 주도하고, 이점이 생기면 청와대와 빈틈없이 조율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당정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와 정부가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쥐었던 기존의 상황에서 벗어나 담이 상임 위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로장의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복귀시켜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현안으로 꼽힌다. 이 원내대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이자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차원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첫 발을 들인 뒤 3선(17·19·20대) 의원으로 성장했다. ▲충북 총주(55) ▲충주고 ▲고려대 국문과 ▲전대협 초대 의장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與 새 지도부 정국 변수 될까

추경 등 현안 산적...여야 물밑 접촉 가능성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정국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포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뒷전으로 밀린 민생 현안을 마냥 미룰 수 없어 조만간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물밑 접촉이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황교안 대표를 직접 겨냥,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전국을 도는 장외투쟁에 돌입했는데 뉴스를 보니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외투쟁이 과거에 야당의 저항수단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폭력사태를 전 국민이 지켜본 상황에서는 길어질수록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기를 마친 홍영표 원내대표는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당정청, 내일 민생현안회의

가맹점 등 5대 분야 점검...민주 “진짜 민생대장정 준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민생 투쟁 대장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소개하며 “5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가맹점, 공기업 하도급, 대형 유통, 비정규직 노동자, 가계 부채 등 5대 민생분야로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박 의원은 또한 자유한국당이 ‘민생 투쟁 대장정’에 나선 점을 거론,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계기로 한국당의 가짜 민생에 맞서 진짜 민생대장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관영 전격 사퇴...의원들 “총선 통합·선거연대 없다”

바른미래, 결의문 채택...15일 새 원내대표 선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의 어떤 형태의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으로 당당하게 출마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제3지대론’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수요일(15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드린 마음의 상처와 당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제가)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며 “15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 많은 갈등을 치유, 회복하고 새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 대단히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달 24일까지로, 잔여임기 40일을 앞두고 중도 퇴진하게 됐다. 그동안 김관영 원내대표는 안철수·유승민 계의 지도부 퇴진 요구를 ‘해당(書翰) 행위’로 규정하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해 왔지만 결국 반발 의원들의 숫자가 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차기 원내대표로는 친손(친 손학규) 성향의 김성식 의원과 비손(비 손학규) 성향의 권은희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신환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안철수·유승민계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도 요구한 바 있어 원내대표 사퇴가 대표 사퇴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또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내 내용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 사퇴 요구가 계속된다면 당이 더 큰 혼란 양상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탈당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의원정수 확대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의원정수는) 그렇게 쉽게 늘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리 당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 전체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에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의사를 의석수에 좀 더 일치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에는 찬성하지만, 의원 수 증가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표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 수 증원에 반대한다”며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보좌관이 써 준 질문지나 읽어대고 공천받기 위해 당권력자를 추종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좀비 의원,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 전체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에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1140002 point

J6 10 point
J5 8point
J3 6point
J2 5point
J1 4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